10.15686/fkl.2024..62.248

기후위기 '다르게 느끼기'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에 관한 시론

윤조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이중 소외자로서의 어린이·청소년
2 미래의 중단과 분열된 얼굴: 그림책 『09:47』(2021)
3 '침묵'의 정동 정치와 전략적 분노: 시집 『알았으면서도』(2023)
4 결론을 대신하여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 〈젠더·어펙트의 실천적 지리와 대안적 역사〉(2023.10.13.~10.14.)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귀중한 의견을 나누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고는 기후위기 시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재현과 현실 정치에 있어 이중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동시대 재현물을 살핌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에 관한 시론적 논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동이라는 문제 틀은 어린이·청소년을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몸'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경화하며 재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사라 아메드가 '행복'과 같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정동과 불화하는 정동 소외자(affect alien)에 주목했듯, 본고는 이중 소외 속에서 포착되는 기후위기 시대 어린이·청소년 정동의 정치적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정동 연구자 신 야오(Xine Yao)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이·청소년 정동을 '다르게 느끼기'(feeling otherwise) 위한 수행적 과정으로서, 어린이·청소년을 정동 당하는 존재로 낭만화, 대상화해온 기왕의 정동으로부터 탈각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이기훈의 그림책『09:47』(2021)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어린이의 정동에 대한 재현의 문제를 톺아본다. 근대적 시간성의 균열을 체현하는 어린이의 신체는 독자를 연루시키며 정동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후 3장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의 사례와 그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기후위기 시집『알았으면서도』(2023)을 분석하며 재현 안팎에서 포착되는 청소년들의 정동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기후위기 시대 어린이·청소년 재현의 딜레마를 징후적으로 독해하고, 그를 정동이라는 문제 틀로 다각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은 기성의 정동 정치에 대항하여 근대적 미래주의에 균열을 가하는 새로운 시공간성을 지시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텍스트들은 자연/문화, 어른/아이의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적이라는 한계를 내포한다.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양가적 함의를 유의하며 보다 면밀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

국문핵심어: 기후위기, 어린이, 청소년, 정동, 탈정동, 대안 정동, 정동 소외, 다르게 느끼기, 그림책, 청소년 기후 행동

1 이중 소외자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인류세', '자본세' 담론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심문하고 현재의 조건을 재고하게 했다. 도나 해러웨이가 말했듯, 중요한 것은 선형적 진보의 시간에 기반한 기왕의 미래주의에서 벗어나 지금껏 간과되어온 물질세계를 새로이 인식하며 현재의 트러블과 오롯이 함께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지"[1]가 중요하다고 할 때,'기후위기'의 종말론적 수사가 종종 어린이와 청소년을 미래의 낭만적 표상으로 동원한다는 사실은 문제적이다. 이는 오늘날의 '미래'는 더 이상 '아이'와 단순히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요청한다. 퀴어 연구자 리 에델만이 저서 『노 퓨처』(No future)에서 이성애규범적 사회가 대문자 아이를 재생산하며 미래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퀴어에게 미래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을 때와는 달리, 어떤 측면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소문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2]

이러한 '미래 없음'의 시대에 '아이'의 존재론은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 본고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어린이·청소년과 재현의 문제를 정동(affect)으로 접근하는 시론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소위 '정동적 전환' 이후 정동은 통상적으로 신체 간의 부대낌 혹은 물질 사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과잉이자 역량으로서, 감정에 비하여 주체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그 사이에서 작동하는 정치

1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2021, 66쪽.

2 에밀리 애쉬튼(Emily Ashton)은 저서 『인류세 아동기』(Antopocene Childhoods)에서 인류세 시대에 미래 자체가 아동의 미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에 더 이상 아동에게 미래가 당연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아동의 존재론과 표상은 새롭게 사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에델만이 구별지었던 대문자 아이와 소문자 아이의 경계가 실은 공고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래가 아동 표상을 제시하지 못하며 아동에게 또한 미래가 당연하지 않은 인류세 아동기 시대에, 에델만의 '미래 없음'은 재생산 미래주의의 대안이 아닌 재난 상황의 반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mily Ashton, *Antopocene Childhoods*, bloomsbury, 2022, pp.14-24.

적 힘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동이 소수자 연구에서 언제나 핵심적으로 탐구해온 역사적 구성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러한 비판은 클레어 헤밍즈와 같은 페미니스트 학자를 필두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연구의 계보를 강조하는 정동 연구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3]

본고 또한 소수자 연구로서의 정동 연구의 일환으로서 정동이 무엇보다도 근대적 독립 주체의 신화를 해체하는 '상호의존성'과 사회정치적 '연결성'을 중요하게 전제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동을 사유하는 일은 어린이·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몸'을 지닌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들의 신체는 양육자나 교사와 같은 돌봄 제공자의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관계는 결코 일방향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이다. 메건 왓킨스가 지적했듯, "정동은 무엇보다 관계적인 현상"[4]이다.

문학 텍스트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 일찍이 아동문학의 고유한 특징으로 여겨져 온 이중 독자의 문제는 그를 예시한다.[5]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인

3 젠더·어펙트 연구는 관계적 윤리에 기반한 젠더 연구를 비롯한 소수자 연구가 '정동적 전환' 이후에 정동 연구와 필수불가결하게 결합하고 있음을 밝히며 연결 신체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연결 신체란 신체 자체를 "연결체"로 봄으로써, 의사소통의 차원 이전에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결 신체를 바탕으로 한 역사는 선형적 시간 속 의식과 담론에 치중한 단편적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신체화, 물질화하는 정동적 시간성으로, 이분법을 넘어서는 '연결성'으로 다시 쓰인다. 달리 말해 미래는 현재 속에 불확실한 신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현재, 「젠더·어펙트·연결성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하다: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갈무리, 2019) 젠더·어펙트연구소, 『약속과 예측』(산지니, 2020)」, 『젠더와 문화』 제14집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1, 117쪽.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산지니, 2020, 151-152쪽.

4 메건 왓킨스,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인정 욕구와 정동의 축적」,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426쪽.

5 아동문학은 주요 대상 독자를 아동으로 가지는 반면 생산자는 대개 성인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이중적으로 코드화되어있다. 이러한 발신/수신 모델에서의 이중성은 성인이 실질적인 소비자라는 점에서 이중 독자의 문제로도 확장된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아동문학 텍스트 안팎에 작동하는 관계망을 지시한다. 마리아 니콜라예바, 김서정 역, 『용의 아이

식하지 못할 때, 어린이·청소년은 현실 정치뿐 아니라 재현에 있어서도 이중의 소외에 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서 제출되기 시작한 소위 기후위기 문학(Climate fiction, cli-fi)은 어린이·청소년 정동을 논하는 데 있어 긴요한 최전방이다. 어린이·청소년이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 마땅히 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은 재현 사이에도 존재하는 과잉의 부산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재현 너머에서 자율적 역량을 가진 실체로서 이중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6] 그렇기에 본고는 사라 아메드가 '행복'과 같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정동과 불화하는 정동 소외자(affect aliens)[7]에 주목했듯, 이중 소외 속에서 포착되는 기후위기 시대 어린이·청소년 정동의 정치적 가능성을 대안적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어린이·청소년을 정동 당하는 존재로 고정짓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동 연구자 신 야오(Xine Yao)가 저서 『디스어펙티드』(Disaffected)에서 소수자 정동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강조한 대안 정동 개념인 '탈정동'을 참조하고자 한다.

신 야오는 『디스어펙티드』에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촉발한 인종차별적 정동에 주목하며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동이 여전히 백인중심적 감상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19세기 미국 문학을 재독하며 '무감정'(unfeeling)을 그 자체로 대안적 친밀성(alternative

---

들』, 문학과지성사, 1998, 90-93쪽 참조.

6 이는 산드라 모야노가 정동 이론과 재현의 문제를 재론하며 정동이 재현의 한계를 둘러싼 난제를 '매개'의 문제로 갱신해주었다고 주장한 바와 공명한다. 그는 정동이 과잉된 힘이자 주체를 구성하는 역량이라는 일견 상반된 특성에 따라 전자에 따르는 비평가들이 재현 사이에 있기를 고수하며, 후자는 그 너머를 사유하고자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편의상의 도식적 구분일 뿐, 핵심은 정동이 재현을 '매개'를 통해 재편한다는 사실이다. Moyano Ariza, Sandra. "Affect Theory with Literature and Art: Between and Beyond Representation", *Athenea Digital* 20(2), 2020, e2319, 1-24.

7 아메드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가치의 경우 그만큼 정동이 투자되기에, 그러한 정동적 공동체에 머물기를 추구할 때 행복이나 즐거움과 같은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보았다. 이때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에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정동적으로 소외된다. 흥을 깨는 페미니스트 킬조이와 우울한 퀴어는 그 대표적인 형상이다. 사라 아메드,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행복의 대상」,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71-72쪽 참조.

intimacy)을 형성하는 전략적 대응의 산물로서 다시 읽어내고자 한다. '탈정동되어라(be disaffected)'는 구호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대표하며 등장한다. 이때 탈정동이란 정동의 대안으로 소수자를 "'정동가능한(affectable) 대상의 자리에서 해방"[8]시키고, '다르게 느끼기'의 방법을 탐구하는 과정이다.[9]

본고는 어린이·청소년 정동을 '다르게 느끼기'(feeling otherwise) 위한 수행적 과정으로서, 어린이·청소년을 정동 당하는 존재로서 낭만화, 대상화해온 기왕의 정동으로부터 탈각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본고는 양육자이자 작가인 이기훈이 '환경위기시계'를 모티프로 차용한 그림책 『09:47』(2021)과 교사 엄지가 청소년들과 함께 출간한 기후위기 시집 『알았으면서도』(2023)의 사례에 주목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안 정동의 징후를 독해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텍스트가 각각 어린이에 대한 미학적 표상과 청소년의 당사자적 글쓰기라는 상이한 차원에서 창작된 서로 다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선정한 이유는 오히려 그렇듯 다른 물질적 조건이 이중 소외라는 재현의 문제를 정동으로 접근할 때의 여러 층위를 풍부하게 드러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의 정동은 단순히 문학 작품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현 과정과 그 너머에서도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며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2장에서『09:47』(2021)을 어린이의 정동에 대한 메타텍스트로 간주하고, 그러한 독법의 의의를 예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미래의 중단을 체현하며 보편적 신체의 규범적 시공간성에 균열을 내는 어린이의 분열적 신체와 그 표정에 대한 상상력은 대안 정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를 바탕

8 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69쪽.

9 이때 정동 가능성과 탈정동은 비판적 인종주의 연구자 데니스 페레이라 다 실바의 용어로, 기존 어펙트 연구가 아닌 소수자 연구의 역사적 계보와의 대화 속에서 고안한 개념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신 야오는 그를 이어받아 대안정동 연구를 제안한다. 자세한 맥락은 권명아, 위의 글, 170쪽; 권명아, 「젠더·어펙트 연구 방법론과 역사성: 역사적 파시즘 연구에서 원격통제 권력 비판까지」, 『코기토』 제100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2장-3장 참조.

으로 3장에서는 청소년이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을 둘러싼 담론에 나타난 '침묵'이라는 정동 소외의 정치의 연장선상에서『알았으면 서도』(2023)가 취하는 전략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포착되는 분노의 정동은 탈정동의 가능성과 어려움을 예시한다

2 미래의 중단과 분열된 얼굴: 그림책『09:47』(2021)

2020년 12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컬러 고화질 해상도 송출이 소모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흑백 화면으로 송출된 영상 속 테이블 위에는 '더 늦기 전에 2050'라는 문구와 함께 시계가 하나 놓여있다. 그 시계는 9시 47분에 멈춰 있다.[10]

작가 이기훈의 그림책『09:47』(2021)[11]은 "지구 환경위기시계 현재 시각 9시 47분, 12시에 이르면…!"이라는 뒷표지 문구가 일러주듯 '환경위기시계'를 핵심 모티프이자 서사 장치로 차용한 작품이다.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 환경재단과 일본 아사히 글래스 재단이 공동 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환경파괴 지표로,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멸망이 다가온다는 비유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1992년 첫 발표 당시 시각은 7시 49분이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 수치가 역대 최고인 9시 47분경으로 연속 측정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12]

---

10 김주성, "환경위기시계 '오후 9시 47분'",『다음 연합뉴스』, 2020.12.20. https://v.daum.net/v/20201210212548739 (2024.7.15.)

11『09:47』은『빅 피쉬』,『양철곰』과 함께 '욕망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이기훈은 '욕망 3부작'에 대해 인간이 정신/물질이라는 위계적 이원론을 통해 물질에 해당하는 "모든 세계를 해석 가능한 세계로 또는 정복할 수 있는 세계로 대상화시켜"왔다는 문제의식으로 작업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빅 피쉬』(2014)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며 벽화를 그리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면『양철곰』(2012)은 쓰레기로 가득 찬 지구를 떠나 황금별로 이주하는 미래이며, 마지막 작품인『09:47』은 현재로 기획했다고 논한다. 남궁훈, "[독자가 만난 작가]『09:47』 이기훈 작가와의 만남",『학교도서관저널』, 2022.2.21. http://slj.co.kr/bbs/board.php?bo_table=people&wr_id=552 (2024.7.15.)

12 이현수, "2022년 대한민국 환경 위기 시계 9시 28분, '매우 위험'",『플래닛 타임즈』, 2022.

이처럼『09:47』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종말론적 수사를 명시적으로 가져와 상상력을 덧대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특히 이 작품이 글이 없는 그림책[13]이기에 서사가 오로지 환경위기시계에 입각하여 전개될 뿐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선형적 시간의 뒤틀림을 주인공 어린이가 체현한다는 점은 더욱 주목을 요한다. 이에 본고는『09:47』이 문자 언어를 생략하고 과감한 시각화 전략으로 독자를 연루시키고자 하는 정동적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14] 이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어린이의 정동을 물음에 부치도록 하는 메타적 질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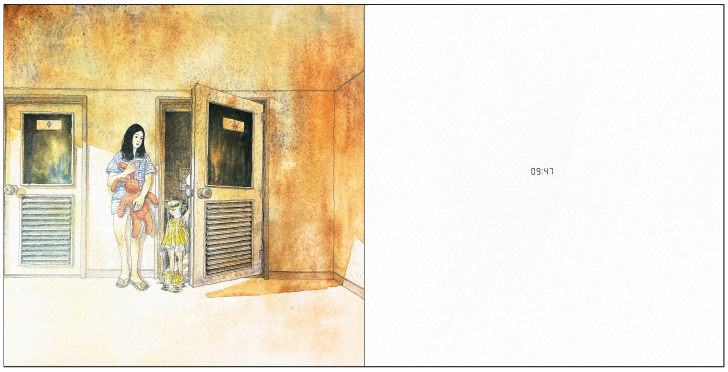
이는 독자들이 "09:47"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다른 시공간성을 어린이의 신체를 빌려 그 관점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족과 함께 목포항에서 출발한 배 갑판에 있던 어린이는 "09:30"에 갈매기 떼를 구경하던 도중 바닷속에서 자신이 껴안고 있는 토끼 인형과 자기 자신을 본다. 어린이는 깜짝 놀라 눈을 의심하며 아빠에게 말을 걸지만, 다시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이후 어린이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다. 그러나 두 컷 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어린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젖어 있다. 시

9.20. http://planet-times.com/View.aspx?No=2608672 (2024.7.15.)

13 글이 없는 그림책은 만화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하게 칸과 칸 사이마다 상상력을 자극하며 독자들에게 스스로 인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길 뿐 아니라, 글을 익히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매체이다. 문자가 가진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시 의미를 한정 짓기도 하기에 글을 생략함으로써 "글이 갖는 한계를 그림으로 표현해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달의 작가:『빅 피쉬』의 이기훈 작가 인터뷰",『비룡소』, 2014.1. http://bir.co.kr/newsletter/2014%eb%85%84-1%ec%9b%94%ed%98%b8/%e3%80%8e%eb%b9%85-%ed%94%bc%ec%89%ac%e3%80%8f%ec%9d%98-%ec%9d%b4%ea%b8%b0%ed%9b%88-%ec%9e%91%ea%b0%80-%ec%9d%b8%ed%84%b0%eb%b7%b0/ (2024.7.15.)
남궁훈, "[독자가 만난 작가]『09:47』 이기훈 작가와의 만남",『학교도서관저널』,2022.2.21. http://slj.co.kr/bbs/board.php?bo_table=people&wr_id=552 (2024.7.15.)

14 케리 말란은 그림책은 형식적으로 감정을 고조시켜 유발하는 순간에 감정에 대한 직접 묘사보다는 정동의 시각화를 활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erry Mallan, "Spatialities of Emotion: Place and Non-place in Children's Picture Books", *Affect, Emotion and Children's Literature*, edited by Kristine Moruzi, Michelle J.Smith and Elizabeth Bullen, Routledge, New York, 2018, p.129.

간은 “09:47”을 가리킨다.



이처럼 충격에 젖은 어린이의 모습은 선형적 서사에 균열을 예고하며 정동적 물음을 던진다. 이후 이 “09:47”의 같은 장면은 작품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 어린이는 갑판에서 몸을 말리는 동안 토끼 인형을 잃어버린 채 목적지에 도착해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을 한다. 컷 사이사이에 꾸준히 배치되는 시간은 어느덧 11시를 넘어간다. 그런데 “11:50”가 되자 바닷속에서 돌연 토끼 인형이 나타나 어린이에게 손짓하고, 어린이는 토끼 인형을 따라 잠수한다. 물속에서 시계는 “12:00”를 가리키고, 시간은 “--:--”로 변하며 거대한 고래가 출현한다. 그때부터 어린이는 토끼 인형과 함께 물에 잠겨 폐허가 된 지구를 탐사하다가 선박의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 타임머신과도 같이, 과거와 미래가 “09:47”이라는 현재로 귀결되며 뫼비우스의 띠 같은 서사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부터의 컷들은 “09:47”로 되돌아가기 전까지 검은색 배경으로 연출된다. 이렇듯 물성적으로도 구분되어 강조되는 환상의 시공간은 토끼 인형을 잃어버린 어린이의 상상이면서 동시에 어린이의 전신을 젖게 만드는 분명한 현실이다. 환경위기시계의 비유에 따르면 이로 인한 어린이의 젖은 몸은 “12:00”라는 멸망 이후의 시공간을 체현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시공간은 쓰레기가 가득한 바닷속을 거칠게 헤엄치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고래 떼를 통해 형상화된다.

실제로 이기훈의 작품에서 폭우나 해일로 인해 범람하고 불어난 물과 무리를 지어 다니는 야생 동물의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기능하는데[15], 이러

한 '홍수'나 '동물 떼'는 전형적인 정동 과잉의 표상이다. 여기서는 멸망 이후를 그리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이 과잉이란 일차적으로 지구에 대한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는 정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공간을 누비는 어린이의 몸짓과 표정이 수중 모험에 대한 역동적 즐거움으로 읽히기도 한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이는 일견 멸망이라는 미래적 상황이나 "09:47"에 어린이가 짓는 부정적인 표정과 상충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09:47』의 뒷날개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이기훈의 자작시 「풍덩」과의 겹쳐 읽기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볼 수 있다. 「풍덩」은 서술자가 물속에서 허락되는 "찰나의 시간"이 "태초에 하나였을 기억"을 되찾기도 전에 끝나버린다고 말하며 시작된다. '아이'는 그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한다. "아이야 / 너는 한없이 자유로워라"라는 구절에서 처음 호명되는 아이는 자신에게 "허용된 무한의 시간"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였을 몸은 망각에서 돌아오고 / 너는 / 이제 / 하나 된다".

이를 『09:47』의 서사에 대입해본다면 "너"에 해당하는 아이는 작중의 어린이이며, "태초부터 하나였을 기억"이자 "몸"이란 인간을 넘어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자연'과 연결된 정동적 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린이는 그에게 "허용된 무한의 시간"이자 "자유"를 온몸으로 체화하며 뛰논다. 그러나 그 자유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09:47"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듯 '하나 된 몸' 되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의 시간'은 허용되지 않고 '찰나의 시간'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어린이의 전신을 젖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 된 몸'에서부터 다시 탈각될 수밖에 없는, 즉 자연과 인간 문화를 이분하는 현실이 추동하는 정동의 과잉이기도 하다. 그리고 독자는 어린이의 시점에서 벌어지

15 예컨대 『빅 피쉬』에서 '빅 피쉬'는 그 자체로 벽화 신화를 통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물의 원천이다. 인간들이 가뭄으로 매마른 땅을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를 사냥하자, 거대한 물살이 일며 해일이 덮친다. 마지막 장면에서 '빅 피쉬'가 인간이 아닌 동물들만을 등에 싣고가는 모습은 '노아의 방주' 모티프를 떠올리게 한다. 『알』(2016)에서는 냉장고 속 계란 '알'을 부화시켜 방 안에서 야생 동물들을 키우던 어린이가 그들과 함께 오리배가 떠다니는 강으로 모험을 떠났을 때 역시 파고가 거칠어진다.

는 이 가능한 미래-현실의 중단과 그로 인해 분열되는 몸의 여정을 함께한 목격자로서 이러한 정동에 연루된다. 즉 독자 또한 다른 시공간을 함께 체화하며 감정에 젖게 된다. 앞면지와는 달리 뒷면지에 그려진 선박의 화장실 창문이 열린 채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러한 대안 정동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독자는 항상 어린이의 정동과 유보적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다.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매체 특성상 언어를 통한 기본적인 감정 유추가 불가할 뿐 아니라, “09:47”이 두 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어린이의 신체 조건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비청소년의 언어화된 규범적 시간성에서 통역 불가능한 어린이의 정동은 쉽게 망각되기 때문이다. 발화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3장에서 살펴볼 보편적 신체에 그 기준을 두는 정동 정치 속에서 침묵된다. 그럼에도 “09:47”이라는 환경위기시계 시간과 나란히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어린이의 복합적인 얼굴은 독자를 포함한 다른 신체들에 흔적을 남기며 정동한다.

그렇기에 『09:47』은 기후위기의 화두 속에서 돌출적으로 포착되는 어린이의 정동에 대해 유효한 물음을 제공한다. 어린이의 감각을 지나친 환상으로만 간과하고 무심히 또 태연히 일상의 휴식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09:47”라는 경계적 시간에 선 어린이의 얼굴은 그 자체로 어린이의 정동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다시금 되묻게 한다. 환경위기시계를 활용한 2020년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중립 영상에서 재생된 신해철의 노래 「더 늦기 전에」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다. “그 누구가 미래를 약속하는가 / 이젠 느껴야 하네 / 더 늦기 전에.” 미래의 중단 앞에서 분열되고 흔들리는 어린이의 신체를 재단하거나 또 다른 본질화 기제에 가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3 ‘침묵’의 정동 정치와 전략적 분노: 시집 『알았으면서도』(2023)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청소년 기후 행동을 위시한 청소년 기후 운동을 둘러싼 담론과 청소년 기후위기 시집 『알았으면서도』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정동 정치를 살펴본다. 그 속에서 포착되는 청소년의 전

략적 분노를 탈정동으로 개념화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치적 존재로서 사회문화 운동에 가담해왔으며, 이는 환경운동 역시 마찬가지다.[16] 다만 청소년 기후 행동의 경우 1990년대에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난 세대가 SNS를 통해 스웨덴 출신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1인 결석 시위를 접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정동적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7] 세계 곳곳에서 기후 현상을 체감하고 있었던 청소년들은 기후 운동 연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을 결성하여 결석 시위에 동시다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를 가능케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기후 위기는 직관적이고 현재적인 경험"[18]이기 때문이다. 한 기사 인터뷰에서 13살 어린이는 체육

16 한국의 경우 가깝게는 2000년대부터 진행된 촛불시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당시 10대들의 참여를 두고 반향이 일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체 형성 과정을 추적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일례로 이해진은 청소년의 시위 참여 경험을 시민적,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는 이중의 과정으로 분석했다. 이해진,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 사회』 제80집, 비판사회학회, 2008, 68-108쪽. 2015년 박근혜 정부 퇴진 시위의 '촛불소녀' 담론은 이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하이텔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되어 입시 거부, 참정권, 학생 인권 조례 제정 등 청소년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청소년 운동사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현·둠코, 『인물로 배우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벗, 2016 참조.

17 Nita Alexander, Theresa Petray, and Ailie McDowall, "More Learning, Less Activism: Narratives of Childhood in Australian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school strike for climate",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8*, 2021, p.99. 덧붙여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공식 홈페이지는 결석 시위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지도를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s://fridaysforfuture.org/action-map/map/

18 진냥, 「기후 위기 시대엔 기후 위기 경험에 터한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육』 제66집, 교육공동체벗, 2022. https://communebut.com/Articl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jt9&bmode=view&idx=10627797&t=board (2024.7.15.) 『09:47』의 작가 이기훈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는 "지금 현실 속에 위기를 직면한 세계를 더욱 염려와 불안으로 바라보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인터뷰: '글 없는 그림책' 작가 이기훈, "우리 모두 글 없는 그림책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3.5.10. https://www.sbs.com.au/

시간이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 교과서를 읽는 수업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방독면을 쓸까 걱정한다.[19] 이처럼 어린이가 체감하는 기후 위기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다. 교사 역시 아이들이 "어떤 신체적인 변화, 피부의 문제, 호흡의 곤란함"[20]을 호소하며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거나 급식을 먹지 않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며 그를 실감한다.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 서적을 읽은 후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초등학생과 그를 우려해 직접 기후소송 캠프에 연락을 취하게 된 양육자의 이야기는 가정에서도 어린이·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에 기민하게 감응할 뿐 아니라 그들과 관계 맺는 비청소년들을 정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1]

청소년 기후 행동 역시 이렇듯 기후위기를 예민하게 감각하고 있었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태동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 기후 행동의 전사가 된 '청소년기후소송단'은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 8월 한 중학교에서 진행된 특별 수업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기후소송 캠프에는 50여명의 참가자가 몰렸다.[22]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성된 청소년 기후 행동은 2019년 3월부터 한국 결석 시위뿐 아니라 2020년 3월 13일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기후 헌법 소원 청구를 주도하기도 했다.[23]

---

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wordless-picture-book-articst-gihun-lee/qe44gwuo4 (2024.7.15.)

19 주현웅, "학교 대신 광장에서 "기후악당 대한민국 탈출하자"",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3.15.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4 (2024.7.15.)

20 진냥, 앞의 글.

21 장은교, "날씨가 왜 이래요? 국가에 소송 거는 아이들", 『경향신문』, 2018.3.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020600025 (2024.7.15.)

22 위의 글.

23 김한솔, "청소년들, 국내 첫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 『경향신문』, 2020.3.1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3131846001 (2024.4.30.) 해당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youth4climateaction.org/climate-litigation 관련하여 2023년 8월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손지연, "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

이러한 움직임에는 평소 환경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뿐 아니라, "'어쩌다보니'"[24]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은 저마다 다른 계기를 가지고 결석 시위에 참여하여 "신나게 구호를 외"치며 "가슴이 벅차올랐다"가, "들뜨게" 되기도 했다가, 시위가 끝난 후 "맥이 탁 풀"[25]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에게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었"던 "갈증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그 갈증을 기반으로 청소년 기후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청소년 기후 행동은 청소년 당사자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급진적 대응에 직접 관여하고 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를 요구하며 "청소년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기후 운동을 만들어 나갈 것"[26]이라고 선언한다. 이들은 '미래세대'이기를 거부하고 현재에 존재하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후발세대'로서 목소리를 높인다.[27]

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서울신문』, 2023.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3500112&wlog_tag3=naver (2024.7.15.) 이외에도 청소년 기후 행동은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성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없는 이들을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2021년 8월 26일 사퇴 후 시민의회를 새로 조직하고자 했다.

24 이러한 사실은 기후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형적인 서사를 경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물질성에 대한 감응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우발적이며 충동적이고, 복합적이다." 신현정·임성은·강다연·김찬종,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제35집 1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22, 101쪽.

25 청소년 기후 행동, 「외면은 그만, 이제는 작면할 시간-멸종 위기 청소년들의 생존을 위한 기후 파업」,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교육공동체벗, 2020, 165쪽.

26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27 청소년 인권활동가 진냥은 청소년을 지칭하는 '미래세대'라는 기왕의 표현이 현재를 살아가는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지운다고 지적한다. "'미래세대'라는 말은 청소년을 현재 사회에서 삭제시키는 말"로, "'어른 되면 해라'"라는 명령 아래 청소년의 모든 활동을 '진로'라는 말로 뭉뚱그리기 때문이다. "'네 순서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라는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후발세대'는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다. 먼저 출발하지 않았어도 모든 자동차가 같은 도로 위에 평등하게 달리고 있듯이, 청소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단순히 기삿거리로 소비되거나 이목만 잠깐 끌고 끝나는 것을 지양"[28]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후 행동의 목소리는 담론적 차원에서 다시금 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적 서사로 환원되고 만다. 청소년 기후 행동은 "결석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세간의 관심도 받았지만, 우리는 '기특한 청소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쓴다.[29] 청소년 기후 행동의 첫 번째 총회 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된다.

> 나이주의가 짙게 밴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비정치적인 존재가 될 것을 요구 받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 청소년은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 참여를 징계하는 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 높이며 거리로 나온 우리는 '학생답지 못하다'거나 '공부가 우선'이라는 말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상반된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바로, '기특한 아이들' '어른들이 미안하다' '공부해야 할 학생들조차 거리로 나왔다'는 식의 보호주의적인 시선입니다.[30]

알렉산더·페트레이·맥도월은 호주의 청소년 기후 행동 시위 보도 담론을 분석하며 위와 같은 서사화 경향을 기대적(anticipatory) 내러티브와 보호적(protectionist) 내러티브로 분류한 바 있다.[31] '학생',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기

진냥,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프레시안』, 2021.8.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214563701232 (2024.7.15.)

28 임병선,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청소년… "우리 환경, 이미 기성세대와 달라"", 『뉴스펭귄』, 2020.3.23.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 (2024.7.15.)

29 청소년 기후 행동, 앞의 책, 165쪽.

30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다른 세상은 가능합니다" https://youth4climateaction.org/about_us

31 Nita Alexander, Theresa Petray, and Ailie McDowall, ibid., pp.96-111.

대를 표출하는 수사와 '기특'하고 '미안'하다는 식의 과잉보호 수사는 기실 어린 신체에 부여된 본질주의적 통념의 양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청소년을 "순수한 존재, 위험하지 않은 존재"[32]로 고정시키고 통제하고자 한다.

> **우리는 기후 위기 문제가 정치적 문제라 생각하고 정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냥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려 낸다.** 정치적 이야기는 때 묻은, 위험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지워진다. 청소년들, 미래 세대가 위험에 처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춰진다. 체감하기로는 캠페인이나 시위를 할 때 찍힌 사진 중에서도 "우린 늙어서 죽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게 해 주세요" 같은 문구의 피켓만 유독 많이 보도되는 것 같다.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 단체의 요구 사항이나 그 내용, 근거에 관한 걸 물어보지 않는다.[33] (강조는 인용자)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정동은 보수 정치의 현상 유지를 위하여 동원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동 정치는 청소년들을 담론 안팎에서 이중으로 소외시키며 그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 '침묵'의 정동 정치는 청소년 활동가들에 의해 적실히 지적되기도 한다.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에서 그레타는 겉치레식 약속과 구색 맞추기와 다르지 않은 초청이 거듭되자 그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말들로 연설을 시작한다. "마이크가 잘 켜져 있나요? 제 영어는 괜찮은가요? 제 목소리가 부디 잘 들리기를 바랍니다. (Is the microphone on? Is my english OK? I hope you can hear me.)"[34] 한국 청소년 기후 행동 역시 2021년 9월 15일 환경부 주관 '미래세대 환경포럼'에 참여하여 원론적인 대답을 반복하는 환경부 장관 측에게 묻는다. "목소리 들리세

32 공현, 「[인터뷰] "한국의 툰베리" 소리는 그만-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오늘의 교육』 제66집, 2022. https://communebut.com/Article/?&bmode=view&idx=10658459&t=board) (2024.7.15.)

33 위의 글.

요?”[35]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무표정함’을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레타 툰베리」에서 그레타는 연설 현장에서 비청소년 인사들이 다가와 자랑스럽다는 말을 건네어도 웃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약속 앞에서 그레타는 헤드폰을 벗고 듣지 않기를 택한다. 이러한 신체적 거부의 제스처는 그레타가 한국의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들과 나눈 줌 터뷰 대화에서 더욱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 유진: 그렇다면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우리를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인데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 그레타의 인사이트가 궁금해.
> 그레타: 그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인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그 사람들과 사진 찍을 때 너무 웃거나 좋아라 하면 안될 것 같아. 되게 재밌는 게, **청소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치인들과 사진 찍을 때 대부분 화난 듯한 무표정을 지어.** 그게 우리 기분을 대신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과의 대화를 즐기지 못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웃음)[36] (강조는 인용자)

청소년 기후 운동가들의 “화난 듯한 무표정”은 청소년의 정동 소외를 강화해온 기존의 내러티브에 균열을 낸다. 청소년은 밝은 미소에 대한 기대를 무감정한 표정으로 배반하며 ‘다르게 느끼’고, 기존의 보편적 정동에서 벗어나 ‘탈정동’하는 듯 보인다. 이렇듯 ‘침묵’의 정동 정치에 맞서 전략적으로 분노하는 청소년의 대안 정동은 글쓰기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4 나탄 그로스만 감독, 「그레타툰베리」, 2021.

35 “잠이 안올 때 보는 ‘이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한정애 장관 발언 모음집.zip”, 청소년 기후행동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YsKE77wGEM (2024.7.15.)

36 남선우,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를 계기로 만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 기후행동 김유진, 김도현 활동가의 줌터뷰」, 『씨네21』1311, 씨네 21, 2021, 45쪽.

기후위기 시집『알았으면서도』(2023)는 독서 교사 엄지가 51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쓴 시를 엮어낸 독립출판물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전사인 '청소년기후소송단'과 유사하게 중고등학교 특별 수업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종의 공동창작 결과물인 것이다. 엄지는 서문인 '첫 말'에서 평소 환경 의제와 "마음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시의 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이를 기획했으며, 청소년들의 시를 최대한 그대로 엮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37] 시집이 부록의 형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이어주세요"[38]라는 문구와 함께 빈 원고지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기획을 교실 바깥의 독자로도 확장하여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39]

이처럼『알았으면서도』는 교육 현장에서 시도된 정동적 글쓰기 실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특수한 창작 과정의 결과로 한 데 묶인 비청소년 교사와 학생 청소년들의 시는 상호성과 관계성을 함의한다. 그런데 이들의 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핵심 주제로 공유하고 있으나, 인식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엄지의 경우 성인 화자인 '나'가 '너'를 아이로 설정하여 말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소년들은 '너'인 지구와 '나'를 동일시한다. 단적으로 엄지의 시「한숨」에서 한숨은 "안개라는 말 대신 먼지라는 말을 / 환호 대신 실망을 먼저 배우는 / 20개월 꼬마의 한숨"[40]이다.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너'를 보며 느끼는 '나'의 안타까움과 죄책감은 다른 시들에서도 발견된다. 엄지의 시 속 '나'는 "내가 느낀 아름다움 / 너도 누려야 할 텐데"[41]하고 우려하고, "너를 위해 / 네가 살아갈 / 이 땅을 위해"[42] 미안하다는 '고백'을 직설적으로 발화한다.

37 엄지,「첫 말」,『알았으면서도』, 현정, 2023, 6-7쪽.

38 위의 책, 140쪽.

39 엄지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실제 수업 후기와 같은 글들도 함께 참조해볼 수 있다.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bookluv153&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2024.7.15.)

40 엄지,「한숨」,『알았으면서도』, 현정, 2023, 129쪽.

41 엄지,「너를 보며」, 위의 책, 40쪽.

42 엄지,「고백」, 위의 책, 22쪽.

이러한 맥락에서 시 「요즘 나는」 속 “요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 너의 얼굴”[43]이라는 시구에서 ‘너’는 의인화된 지구이기도 하지만 후발 세대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도 너는 잔뜩 뿔난 얼굴”이며, 그래서 ‘나’는 답답해진다. 그렇다면 이 ‘뿔난 얼굴’의 정동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어떠한 ‘나’의 얼굴을 묘사할까? 선술했듯 청소년들의 시에서 ‘나’는 지구와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추시진은 시 「지구와 나」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불규칙한 날씨를 시험지를 받았을 때의 감정에 비유하며 “나처럼 지구도 엉망인 것 같다”[44]고 쓴다. 표시은의 시 「발자국」의 ‘나’는 자신의 발자국이 ‘너’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너는 나고 나는 너”[45]임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렇듯 ‘너’인 지구와 동일시하는 ‘나’라는 ‘우리’는 “미래라는 감옥 속에 갇”[46]혀있다. 엄지의 시 「감옥」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은, 김신애에 의해 ‘미래’로 구체화된다. ‘우리’는 과열 경쟁 속에서 약속된 ‘미래’에 사로잡힘으로서 정작 그 미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 아래 “미래를 위해 살아간다며 / 미래를 없애는 우리에게 / ‘미래’는 도대체 무엇일까”[47]하고 묻는다.

김민준의 시 「정적」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 내일을 팔았다”[48]는 구절 또한 이와 상통한다. 그런데 이렇듯 모순을 통해 시간성을 되묻는 과정이 제목에 내건‘정적’의 순간에 대한 형상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팔았다

정적

---

43 엄지, 「요즘 나는」, 위의 책, 99쪽.
44 추시진, 「지구와 나」, 위의 책, 115쪽.
45 표시은, 「발자국」, 위의 책, 71쪽.
46 김신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위의 책, 101쪽.
47 위의 글, 101-102쪽.
48 김민준, 「정적」, 위의 책, 113쪽.

나는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정적은 '우리'는 물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눈과 귀를 막은 채 내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일을 팔아넘긴 시적 화자 '나'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나는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를 가늠해보는 동요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의 시간성에 기반한 매끄러운 정동 구조로부터 거리를 두는 탈정동적 순간으로도 읽힌다.

그렇기에 김재희가 "시계 같은", "내일을 향하지만 결국 돌아오고 마는 / 시곗바늘 같은 삶을 살지 말자"[49]고 쓰는 것은 그러한 시간성의 바깥을 지시하는 행위다. 『09:47』 속 어린이가 비선형적 시간을 체현했듯, '미래 없음'의 시간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표제작인 김상은의 「알았으면서도」에서 화자인 '우리'는 '너'로 호명되는 지구의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여긴다. 그렇기에 "내어줌에 한 자락의 망설임 없던 / 너의 안이 비어간 지 오래"다. 이렇듯 '우리'는 "고인 채 드리워진 잔잔함"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인지도 모른 채"[50] 살아간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은 '알았으면서도' 다시 행해진다. 이 시구는 다른 시에서도 반복된다. "알았으면서, 다 알았으면서"[51] '우리'는 "모른 채" 산다. 윤채영은 이를 '모르는 척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비유하며, "어린 나"와 "어른인 나". 그리고 "너"는 모두 "모르는 걸까 / 모르는 척하는 걸까"[52] 하고 묻는다.

분노의 정동은 바로 이러한 응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 얼굴이 향하는 '너'는 청소년 화자가 속한 '우리'와는 구분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일례로 김민서의 「비겁한 회피」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 너나 잘하세요."[53] 여기서 '회피'하는 '너'는 "자기들이 벌여 놓고, / 자기들은 도망가 놓고" 가는 '너'다. 시는 '너'의 정체를

49 김재희, 「시계」, 위의 책, 91쪽.
50 김상은, 「알았으면서도」, 위의 책, 94쪽.
51 박성호, 「다 알았으면서」, 위의 책, 43쪽.
52 윤채영, 「모르는 척 챌린지」, 위의 책, 62쪽.
53 김민서, 「비겁한 회피」, 위의 책, 77쪽.

더 나아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보다 선행하여 일을 벌일 수 있는 권력자라는 점에서 기성세대라고 추측할 수 있다.

김소율의 「난 모르겠다」는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 앞에서 '나'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느껴온 부당함을 포함한 불안과 혼란의 감정을 "난 지구를 아프게 한 적이 없는데 / 자꾸 아끼라고 한다"[54]고 적는다. 나아가 유지우의 시는 정동 소외자로서의 감각을 잘 보여준다. 제목의 「올해 겨울은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이렇듯 "따뜻한 겨울"과 "서늘한 여름"에도 "모두가 웃고 있다"고 서술한다.[55] 그러나 그들과 동조할 수 없어 거리를 두고 있는 '나'에게 이러한 풍경은 기묘하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어 / 울부짖는 소리는 / 웃음소리에 가려 / 들리지 않는다."

이렇듯 분노의 정동을 표출하는 '나'와 '우리'는 박동현의 시 「상실」이 지적하듯 마땅한 언어를 잃어버린 채 "이제 하나의 징후"[56]다. "더는 아무 의미도 / 더는 아무 순간도 아니"라는 시구가 지시하는 상실은 그렇기에 청소년의 탈정동이 거듭 소외되고 미끄러지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또 거의 잃어버렸다"는 상실의 감각은 그로부터 발아할 수 있을 일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임은정의 시 「떨어진다」를 빌리자면, 지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파편들을 누군가는 "밟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무시하지 못"[57]하기 때문이다. 『알았으면서도』 속 청소년들의 시는 이렇듯 양가적인 정동적 가능성을 적실히 묘사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재현과 현실 정치의 차원에서 이중의 소외에 처해 있음을 고찰하고, 그에 대항하여 소수자 연구로서의 정동 연구의

54 김소율, 「난 모르겠다」, 위의 책, 36쪽.
55 유지우, 「올해 겨울은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 위의 책, 98쪽.
56 박동현, 「상실」, 위의 책, 80쪽.
57 임은정, 「떨어진다」, 위의 책, 57쪽.

일환으로서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을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기훈의 『09:47』를 통해 어린이의 정동에 대한 메타적 질문을 제기하고, 청소년 기후 운동의 맥락에서 제출된 기사, 르포와 함께 청소년 기후위기 시집 『알았으면서도』를 예시로 탈정동의 징후를 살펴보았다. 정동 소외가 발생하는 경계에서 출현하는 분열하는 어린이의 신체와 청소년의 전략적 분노는 근대적 미래주의에 기반한 지배적 정동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시공간성을 지시한다. 이는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가"[58]라는 질문으로 문학 연구의 영점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동시대적 상황에 긴요한 또 하나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웃음소리 속에서 울부짖는 청소년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알았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탈정동의 순간에 기꺼이 사로잡혀 차라리 "흠뻑 젖"[59]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차에도 불구하고 『09:47』의 온몸이 젖은 어린이의 얼굴을 직시하고 뒤늦게나마 함께 분노해야 한다. 그 전략적 분노 속에서 비로소 '하나 된 몸'의 시간은 온다. 이러한 시도 속에서만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청소년의 정동을 '다르게 느끼기'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르게 느끼기' 역시 인간예외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위기시계라는 멸망의 시간성 자체가 인간중심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09:47』의 어린이의 분열적 신체는 자연 소외와 겹쳐 제시되는 것이기도 하다.[60] 그러나 이 경계 자체가 자연/문화의 이분법 속에서 배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대안 정동이 전제하는 시공간성의 조건을 계속해서 되묻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61]는 청소년 당사자의 시적 발화 또한 종말론의 외피를 입은 근대적 욕망에 포섭되

58 채효정, 「누구의 목소리로 위기를 말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구성하는 언어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 제8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14-15쪽.

59 남궁훈, "[독자가 만난 작가]『09:47』 이기훈 작가와의 만남", 『학교도서관저널』, 2022. 2.21. http://slj.co.kr/bbs/board.php?bo_table=people&wr_id=552 (2024.7.15.)

60 김효정·현은자, 「이기훈의 〈욕망 삼부작〉에 나타난 자연 소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23집 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2, 216쪽.

61 임형민, 「미래는 없다」, 『알았으면서도』, 현정, 2023, 68쪽.

기 쉽다. 하지만 본고는 그를 위한 시론에 그쳐, 어린이·청소년 정동을 역사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하지는 못했다. 어린이·청소년 존재와 재현의 문제라는 오랜 주제를 대안 정동을 통해 재론하고자 하는 시도는 보다 풍부한 계보 속에서 더욱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엄지, 『알았으면서도』, 현정, 2023.

이기훈, 『09:47』, 글로연, 2021.

논문 및 평론

권명아, 「보편적 어펙트 연구 비판과 젠더·어펙트 연구」, 『사이間SAI』 제33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2, 151-182쪽.

_____, 「젠더·어펙트 연구 방법론과 역사성: 역사적 파시즘 연구에서 원격통제 권력 비판까지」, 『코기토』 제100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3, 7-49쪽.

김효정·현은자, 「이기훈의 〈욕망 삼부작〉에 나타난 자연 소외」,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23집 3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22, 207-221쪽.

남선우, 「다큐멘터리 [그레타 툰베리]를 계기로 만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기후행동 김유진, 김도현 활동가의 줌터뷰」, 『씨네21』1311, 2021, 씨네21, 42-47쪽.

신현정·임성은·강다연·김찬종, 「청소년 기후 시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유물론적 관점을 토대로」, 『환경교육』 제35집 1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22, 82-109쪽.

이해진,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경제와 사회』 제80집, 비판사회학회, 2008, 68-108쪽.

이현재, 「젠더·어펙트·연결성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하다: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갈무리, 2019) 젠더·어펙트연구소, 『약속과 예측』(산지니,

2020)」, 『젠더와 문화』 제14집 2호,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21, 113-122쪽.
채효정, 「누구의 목소리로 위기를 말할 것인가: 기후위기를 구성하는 언어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민족문학사연구』 제83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7-43쪽.
현명주·김남수, 「경계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의 기후결석시위: 정체성, 학교 교육, 시위문화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제34집 2호, 한국환경교육학회, 2021, 151-166쪽.
Moyano Ariza, Sandra. "Affect Theory with Literature and Art: Between and Beyond Representation", *Athenea Digital* 20(2), 2020, e2319, 1-24.
Nita Alexander, Theresa Petray, and Ailie McDowall, "More Learning, Less Activism: Narratives of Childhood in Australian Media Representations of the school strike for climate", *Austral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38, 2021, 96-111.

단행본

공현·둠코, 『인물로 배우는 청소년운동사』, 교육공동체벗, 2016.
권명아 외, 『약속과 예측: 연결성과 인문의 미래』, 산지니, 2020.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66쪽.
마리아 니콜라예바, 김서정 역, 『용의 아이들』, 문학과지성사, 1998, 90-93쪽.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71-72, 426쪽.
청소년 기후 행동,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교육공동체벗, 2020.
Emily Ashton, *Antopocene Childhoods*, bloomsbury, 2022, pp.14-24.
Kristine Moruzi, Michelle J.Smith and Elizabeth Bullen, *Affect, Emotion and Children's Literature*, Routledge, New York, 2018, p.129.

기타

나탄 그로스만 감독, 『그레타툰베리』, 2021.

청소년 기후 행동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
미래를 위한 금요일 홈페이지, https://fridaysforfuture.org/action-map/map/
“잠이 안올 때 보는 ‘이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한정애 장관 발언 모음집.zip”, 청소년 기후 행동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YsKE77wGEM (2024.7.15.)
현정통합교육연구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bookluv153&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2024.7.15.)

공현, 「[인터뷰] “한국의 툰베리” 소리는 그만 -청소년기후행동 윤현정 활동가」, 『오늘의 교육』 제66집, 2022. https://communebut.com/Article/?&bmode=view&idx=10658459&t=board (2024.7.15.)
김주성, “환경위기시계 ‘오후 9시 47분’”, 『다음 연합뉴스』, 2020.12.20. https://v.daum.net/v/20201210212548739 (2024.7.15.)
김한솔, “청소년들, 국내 첫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 『경향신문』, 2020.3.13.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3131846001 (2024.7.15.)
나혜인, “인터뷰: ‘글 없는 그림책’ 작가 이기훈, “우리 모두 글 없는 그림책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3.5.10. https://www.sbs.com.au/language/korean/ko/podcast-episode/wordless-picture-book-articst-gihun-lee/qe44gwuo4 (2024.7.15.)
남궁훈, “[독자가 만난 작가]『09:47』 이기훈 작가와의 만남”, 『학교도서관저널』, 2022.2.21. http://slj.co.kr/bbs/board.php?bo_table=people&wr_id=552 (2024.7.15.)
손지연, “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서울신문』, 2023.8.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3500112&wlog_tag3=naver (2024.7.15.)
이현수, “2022년 대한민국 환경 위기 시계 9시 28분, ‘매우 위험’”, 『플래닛 타임즈』, 2022.9.20. http://planet-times.com/View.aspx?No=2608672

(2024.7.15.)
임병선,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청소년… “우리 환경, 이미 기성세대와 달라””, 『뉴스펭귄』, 2020.3.23.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 (2024.7.15.)
장은교, “날씨가 왜 이래요? 국가에 소송 거는 아이들”, 『경향신문』, 2018.3.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3020600025 (2024.7.15.)
주현웅, “학교 대신 광장에서 “기후악당 대한민국 탈출하자””, 『그린포스트코리아』, 2019.3.15.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94 (2024.7.15.)
진냥,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프레시안』, 2021.8.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214563701232 (2024.7.15.)
___, 「기후 위기 시대엔 기후 위기 경험에 터한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육』 제66집, 교육공동체벗, 2022. https://communebut.com/Article/?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jt9&bmode=view&idx=10627797&t=board (2024.7.15.)
“이달의 작가: 『빅 피쉬』의 이기훈 작가 인터뷰”, 『비룡소』, 2014.1. http://bir.co.kr/newsletter/2014%eb%85%84-1%ec%9b%94%ed%98%b8/%e3%80%8e%eb%b9%85-%ed%94%bc%ec%89%ac%e3%80%8f%ec%9d%98-%ec%9d%b4%ea%b8%b0%ed%9b%88-%ec%9e%91%ea%b0%80-%ec%9d%b8%ed%84%b0%eb%b7%b0/ (2024.7.15.)

Abstract

Feeling Climate Crisis Otherwise
– A Study on Alternative Affect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

Yoon, Joewo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reading of affect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contemporary climate crisis discourse and literary works. Regarding the double marginalization of the youth in terms of representation and politics, it focuses on affect in order to effectively identify children and adolescents as present beings and to criticize the problem of represenation. As Sara Ahmed emphasized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affect alien', this paper aims to depart from the affect that has romanticized and objectified the youth. In this process, children and adolescents' affect and its political potentiality could be actively considered beyond affectabil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itself is also a result of "feeling otherwise," emphasized by Xine Yao through the concept of 'disaffection.'

This essay therefore begins by raising the question of the representation of children's affect through Lee's picture book *09:47* (2021). After, I examine the alternative affective strategies through the poetry anthology *Even Though I Knew* (2023) in relation to the case of youth climate activists. In doing so, I reveal how children's and adolescents' alternative affect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are producing new temporalities against linear futurism. However, these texts not only reproduce nature/culture and adult/child binaries but also have the limitation of being fundamentally anthropocentric. The study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alternative affect should constantly be aware of these ambivalent implications and be complemented by careful historicization.

Key words: Climate Crisis, Children, Adolescent, Youth, Affect, Disaffect, Affect Alien, Cli-fi, Picturebook, Fridaysforfuture

논문투고 / 2024.07.15.
논문접수 / 2024.07.22.
게재확정 / 2024.08.05.